

第147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10月24日(火)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1988年度歲入歲出決算(계속)
 - 가. 勞動部所管(계속)
2. 198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계속)
 - 가. 勞動部所管(계속)

審査된案件

1. 1988年度歲入歲出決算(계속)
 - 가. 勞動部(계속)(質疑).....1面
2. 198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계속)
 - 가. 勞動部(계속)(質疑).....1面

(14時21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本 勞動委員會의 委員으로 계셨던 李海瓚委員께서 勞動委員會 委員을 사임함으로 해서 請願小委員會의 委員 자리가 缺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國政監査結果報告書作成小委員會의 委員長 자리가 缺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補選을 해야 됩니다. 이 各 小委員會의 構成에 있어서 各 政黨別 按配原則에 따라서 이 缺員된 자리는 平和民主黨 자리입니다.

방금 直前에 各黨 幹事會議에서 請願審査小委員會의 委員으로 平和民主黨所屬 李協委員을 추천해 주셨고 國政監査結果報告書作成小委員會의 小委員長에 韓光玉委員을 추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各 小委員會의 補選을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請願審査小委員會의 委員으로 李協委員 國政監査結果報告書作成小委員會의 委員長에 韓光玉委員이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 1988年度歲入歲出決算(계속)

가. 勞動部(계속)(質疑)

2. 198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계속)

가. 勞動部(계속)(質疑)

(14時24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88年度 勞動部所管 歲入歲出決算 및 議事日程 第2項 1988年度 勞動部所管 豫備費支出承認의件을 繼續해서 一括上程합니다.

어제 會議에서 이 두 件에 대한 政府側 報告와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民主正義黨所屬의 李康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熙委員 民主正義黨의 李康熙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1988年度 決算에 대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決算質問드리기 前에 長官님께서 오랫동안 또 天職으로 우리 國會의 大先輩 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國會 副議長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全般的인 政治 또는 行政에 대한 문제에 대단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으로서의 우리 勞動行政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今年에 勞使問題가 상당히 심화되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꼭 다행스럽게 안정추세를 이루어서 長官님 赴任하신 이래 그런 문제

가 점차 해소되는 것같아서 또한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勞動行政問題에 長官님의 그러한 力量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어제 報告를 해주신 것 중에서 一般會計 豫備費支出에 있어서 1億2,300萬원이 不用되고 있는데 그 不用額이 勞組幹部에 대한 教育費 未執行으로 발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지난번 國政監査 本部監査 당시에 某部處에 대해서 豫算支援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事業을 행한다는 것이 상당한 問題點으로 대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他部處에서 이러한 豫算을 지원을 받으면서 自體의인 豫備費가 不用되고 있다는 것이 어찌면 非合理的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에서 제가 質問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 李委員님이 말씀하신 豫備費 가운데 不用額이 1億2,355萬원정도 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李委員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勞總支援을 위해서 책정했던 補助金の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7年 6·29 이후에 單位勞動組合이 2,725個에서 88年6月30日 당시에 5,062個로 86%가 증가했습니다. 新生勞組의 幹部들은 勞動組合運營의 미숙으로 不法의 勞使紛糾가 자행되는 현실에 이르렀었고 또 이에 대해서 韓國勞總傘下 單位勞組 또 新生勞動組合 幹部에 대해서 勞動組合 活動에 관한 教育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지원을 당시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勞動部로서는 이러한 單位勞組 幹部에 대한 教育을 政府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기보다는 勤勞者들의 結集體라고 할 수 있는 韓國勞總이 실시하는 것이 教育效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시 韓國勞總에 補助金を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8年11月9日 勞總의 臨時代議員大會에서 朴鍾根委員長께서 새 委員長으로 補選되고 執行部가 새로 구성되면서 이미 교부한 教育活動費 집행에 대해서 產別代表者會議에서 집행방법의 異見이 조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반납되어 왔기 때문에 不用額이 생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熙委員** 이 돈이 勞總에 教育費로 지원해 주었는데 勞總에서 거부하고 반환된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당시 勞總이 직접 집행할 것이나 產別이 서로 분할해서 집행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되돌려 주었기 때문에 不用한 것입니다.

○**李康熙委員** 勞動部는 기본적으로 勞組의 幹部教育을 위해서 이것을 집행하려는 단계에 있었으나 실제적인 돈을 받아서 教育을 행해야 될 勞總이 그러한 異見때문에 쓰지 않고 반환했기 때문에 이런 不用豫算處理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렇습니다.

○**李康熙委員** 勞總의 教育에 대한 政府의 뒷받침이 앞으로 長官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 教育은 그 이후 執行部가 안정이 되면서부터 89年度부터는 勞總自體에서 하는 教育이 實效性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政府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李康熙委員** 그후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또 勞總에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前年度하고 現年度는 좀 달라진 형편에 있군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렇습니다.

○**李康熙委員** 그점이 중요해서 本委員이 質問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勞總이 자체적인 문제때문에 政府支援을 거부했지만 금년에는 支援해 가고 있고 教育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렇습니다.

○**李康熙委員** 알겠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작년에 여러가지 產災保險에 대한 發生件數나 지급에 대한 것이 豫算보다는 差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겠지만 勞動部全體 總不用額이 325億8,500萬원 그중 產特이 多數豫算을 차지하겠지만 나머지는 豫算節減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87年 이후 勞動問題가

상당히 國家經濟 자칫 國基를 흔들는 危險水位까지 갔다고 모든 國民들이 느끼고 있는데 勞動部의 總豫算이 늘 말했지만 國家總豫算의 0.5%의 아주 작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심각한 勞動問題를 해소하는 데 뒷받침될 수 있는 財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不用額이 勞動部自體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대조적인 입장을 이루는 것 같아서 그런데 豫算不用額이 이렇게 轉用되고 하는 문제가 勞動政策과 앞으로 豫算反映시키는 데 相異點이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勞動行政에 사용되고 있는 豫算總額이 전체 豫算額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데 대해서는 선적으로 동감입니다. 88年度 豫算使用에 있어서 不用額이 발생한 것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產特의 경우는 불가피했습니다마는 一般會計 歲出豫算不用額의 경우 豫算現額 대비 1.5%로 87年度の 0.6%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 主要內譯과 過多 豫算編成要求에 대해 答辯드리면 88年度 一般會計 歲出豫算의 不用額에 대한 主要內譯은 定員 또 基準號俸未達運營에 따른 人件費 執行殘額이 2億3,600萬원 事業計劃變更 및 取消에 따른 不用額이 5億6,500萬원 등이고 支給事由未發生이 3,700萬원 豫算節減이 1億9,700萬원 其他 執行殘額이 4億1,400萬원입니다.

不用額內譯中 豫算編成과 執行의 時差는 豫算節約으로 인한 不用額 등을 제외한 순수 不用額은 사실 4億1,100萬원입니다. 이것은 0.4%에 해당된다는 이는 59個 機關의 執行殘額으로서 豫算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가 또 써야할 돈을 못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熙委員** 남았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효과적인 勞動行政을 위해서 가뜩이나 적다는 豫算이 남을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라면 많은 직은 次年度 豫算을 반영하는 데 상대적으로 입장이 다른 입장을 서실까 하는 우려와 노파심에서 이 문제를 質問드렸습니다.

다음에 訓練促進基金이나 保險金을 받았다가

반환해 주는 문제가 금년에 54億5,900萬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國家가 행해야 될 사업이고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자리를 잡아왔고 또 이것에 대한 사업이 國家에 많은 이익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한 가지 本委員이 의문스러운 것은 이런 것을 負擔하는 企業이 상당한 分擔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반환할 당시 政府立場에서 利率이나 이러한 計算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訓練促進基金도 과다징수를 해서 반환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本委員이 質問드리는 취지는 만약 미납했을 경우 어떤 의미에서 부과금을 받고 있는데 반환해 주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것을 해 줌으로 해서 企業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50億이 넘는 돈을 받았다 반환하는 데는 政府로서 그러한 計算法이 확고부동하게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勞動保險局長입니다. 利率은 1日 100원에 대해서 3錢의 비율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勞動部傘下 집안끼리 이견을 달리하는 것을 本委員이 과내는 결과가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傘下機關의 豫算을 반영하는 것이 일단 本部의 勞動部를 거쳐서 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本部의 豫算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주력해서 반영하는데 傘下機關에 대한 豫算問題는 상당히 동한시 내지 소홀히 하는 점이 없지 않다 하는 것이 勞動部傘下機關의 평상시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長官님께서 傘下機關에 대한 豫算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고 適時에 適正豫算이 반영되어야만 모든 것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는 것은 부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데에도 本部立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운영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부연드리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熙委員 質問**하실 委員들이 많으실데니까 이만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平和民主黨所屬 **韓光玉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平和民主黨所屬의 **韓光玉**입니다.

우선 豫算과 관련된 것은 항상 우리가 政策과 行政을 數字上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豫算執行의 결과가 決算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런 면에서 앞서 **李康熙委員**도 全體的인 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적은 豫算에 311億 이상이라고 하는 不用額이 發生했다고 하는 것은 豫算編成에 問題點이 있었다 이렇게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선 本人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豫算을 책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用途에 맞도록 그 豫算이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問題點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豫算決算現況에도 나와 있고 또 歲入歲出決算概要에도 나와 있지만 職業訓練基金總額이 512億2,200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職業訓練基金이 쓰이는 用途를 보니까 委託訓練 職業訓練補助金, 出捐金 그래서 필요한 職業訓練에 사용하라는 돈입니다. 그것이 512億2,200萬원인데 本委員이 판단하기에 이 用途를 적절하게 지출된 額數가 委託訓練費로 7億5,000萬원 出捐金으로 39億1,000萬원 그 다음 融資金으로 20億 이래 가지고 66億6,000萬원입니다. 나머지 預託金은 金融機關에 442億3,000萬원이 預置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決算報告書를 찾아 보니까 이 돈이 國民銀行 中小企業銀行 韓國住宅銀行 그다음 農協 韓國投資金融株式會社 이래 가지고 10餘군데 이상으로 各 金融機關에 豫置시켰어요.

本委員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職業訓練基金이 과연 用途에 맞도록 사용됐는지 보다는 어떻게 막대한 돈이 銀行에서 또는 金融機關에서 利子增殖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職業訓練基金이 勤勞者들의 職業訓練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銀行에서

利子增殖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하여 長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점이 그러한 하면 職業訓練促進基金 歲出豫算중에 分擔金收入에 비해서 訓練費에 대한 投資가 적어 가지고 預託金이 있어서 同基金이 본래 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게 運用되고 있는데 그러한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韓光玉委員** 앞으로는 是正이 되어야 되겠죠?

○**勞動部長官 崔永喆** 물론이죠. 지금 현재 職業訓練促進基金 投資實績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中小企業이 밀집한 地域工團이라든지 事業主團體가 職業訓練院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89년부터 90年度까지 220億을 지원해 주고 또 分擔金 納付業體등에 필요한 技能人力을 양성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88年度에는 제가 와서 훑어 보니까 資金融資事業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 진전된 것 같습니다. 남은 돈을 그대로 놔 두어서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預託을 해 가지고 다소 增殖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產災基金運用에 대해서 總額이 1,025億5,200萬원입니다. 產災基金도 用途를 보니까 保險給與充當, 災害豫防事業을 위한 施設投資融資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產災患者가 發生하지 않도록 미리 豫防措置를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어떤 조치를 하는데 사용하라 하는 돈입니다. 本委員이 入手한 자료중에서 產業安全保健法改正을 위한 保健醫療團體 共同政策委員會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물론 이 數字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數字를 보니까 88年度 昨年 한 해만 해도 產業災害를 당한 우리 勤勞者數가 15萬名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詰 예.

○韓光玉委員 이중에서 2,000餘名이 죽었다고 그래요. 맞지요?

○勞動部長官 崔永詰 예.

○韓光玉委員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社長들한테는 先進祖國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勤勞者들한테는 產災王國이라고 하는 자조적인 말을 사용해도 틀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 쪽 보면 臺灣이나 싱가포르나 소위 開發途上國에 있는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3·4 배나 되는 產災患者數가 發生하고 있는데 이런 數字를 80年 이후 현재까지 9年間 통계를 잡아보니까 產業災害被害 勤勞者數가 130萬名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數字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產災를 당한 勤勞者들도 문제지만 經濟的 소실도 대단히 큼니다. 損失額만도 87年에 1兆4,000億원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勤勞者들의 人權問題도 중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產業平和라든가 또 高度産業을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產災患者數가 이렇게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勤勞者들의 人權問題라든가 健康問題에 대해서 얼마만큼 企業主들이 소홀히 했으며 또 監督官廳인 勞動部에서 얼마만큼 產災豫防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數字가 입증해 주고 있는거예요.

產災基金運用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1,025億5,200萬원 중에서 用途에 적합하게 쓰인 額數가 災害豫防施設資金融資에 40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982億8,800萬원은 이것도 金融機關에 預託했어요. 金融機關에서 利子놀이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것을 볼 적에 과연 우리 勞動部에 불문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產災問題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이미 豫算이 확보된 資金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勞動部가 얼마만큼 產災豫防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웅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長官의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總基金의 3.9%만이 제 用途에 쓰였다는 얘기에요.

○勞動部長官 崔永詰 알겠습니다. 韓委員 말씀하신 대로 全體적으로 우리나라의 產災率이 外國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사실 昨年度에 우리나라의 產業災害發生率을 보면 2.48% 정도더군요. 그런데 그 정도면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NICS 가운데에서도 제일 떨어지고 그래서 今年에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10月 현재 產災發生率이 한 2.1%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先進國型이 되기 위해서는 한 1%線臺가 돼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產業災害保險基金은 그 규모가 1,000餘億원이 되고 韓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產災豫防對策 또는 產災勤勞者福祉對策에 투입한 금액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豫防費로 사용한 것이 한 40億원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基金은 따로 保險金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責任準備金으로 積立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勞動福祉對策은 전번에 國監 때도 가서서 지적을 해 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勤勞福祉公社가 大행을 하고 있어서 다소 미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一般會計는 災害豫防費로 88年度에는 73億2,000萬원이 계상되어서 本部 產業安全局의 각종 產災豫防事業費로서 또 두 번째로는 產業安全公團의 事業費로서 전부 쓰여지고 지금 韓委員님이 말씀하신 基金活用이 미진했던 점은 그러한 연유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여튼 產災豫防은 저로서도 크게 역점을 두어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돈 많이 쥐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力點事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長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병들어 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할 적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者들은 요즘 흔한 말로 몇 천만원짜리 침대라든가 또 무슨 수백만원짜리 코트

라든가 過消費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회의 지적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每年 막대한 2,000餘名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또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企業主라든가 또 우리 勞動部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이 產災豫防을 아주 강화시키도록 長官이 특별지시를 내릴 용의가 없는가 한번 다시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취임한 이후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產業安全保健管理法改正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韓委員님 말씀하신 이 基金中에서도 基金이 保險金을 지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경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령 전체 基金의 몇 %는 產災豫防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法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關係部處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制度的으로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昨年度에 설립된 產業安全管理公團에 있어서 각종 기구라든가 혹은 교육같은 것은 그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 같습니다. 韓委員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이 부문에 역점을 두어서 產災率이 빨리 더 하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勞動科學研究所라는 것이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永結** 지금 현재 產業安全管理公團으로 합쳐졌지요.

○**韓光玉委員** 그러면 豫算도 흡수가 됐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88年度에 됐습니다.

○**韓光玉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統一民主黨所屬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盧武鉉委員입니다.

우선 質問 전에 決算報告書를 받고 또 決算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해 보면서 지난 번 國政監査 때 決算과 관련된 資料

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전혀 반지를 못하고 아직 그 資料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決算審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과연 꼭 알고자 하는 문제에 관한 資料 없이 하는 決算審査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를 좀 자조하면서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한다는 뜻에서 몇 마디 더 묻겠습니다.

韓國產業訓練協會에 委託教育을 실시하고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永結** 예.

○**盧武鉉委員** 委託教育의 종류는 管理者 및 監督者訓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苦衷處理委員 委託教育이 있는데 管理者 및 監督者教育은 使用者에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지 않습니다. 義務的인 것은 아닙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管理者 監督者의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法的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것은 職業訓練基本法에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권장사항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使用者로서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일반적으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職業訓練 과정에 그와같은 과정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다음에 苦衷處理委員에 관한 교육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法上 교육근거는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냥 勞使協議法에 의해서 苦衷處理委員會를 두게 되어 있고...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 사람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것은 政策的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苦衷處理委員 委託教育의 필요성 문제는 오히려 다른 政策에 관한 문제 이니까 묻지 않겠는데 어쨌든 委託教育을 하는데 勞動部가 88年度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豫算의 어느 項目에서 얼마를 지출했다고 答辯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職業訓練局長께서도 監督者 및

管理者 委託教育에 대한 것도 준비해 주십시오.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職業訓練局長 所管事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韓國産業訓練協會에 위탁하고 있는 管理 監督者訓練은 88年度의 경우에는 1,500名을 목표로 해서 2億7,100萬원을 지원했습니다.

○盧武鉉委員 豫算 어느 項目에서?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職業訓練促進基金에서 委託事業費로 보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이것은 一般會計가 아니고 基金會計라는 뜻이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管理 監督者教育으로 職業訓練基金에서 2億7,100萬원을... 그럼 이것은 基金의 사용용도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委託訓練事業費입니다.

○盧武鉉委員 그 다음에 苦衷處理委員 委託教育에 대해서 答辯 준비 되셨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苦衷處理委員 교육을 위한 豫算을 一般會計 315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에 있습니다. 그 項目에서 88年度에 1億6,233萬원이 보조됐습니다.

○盧武鉉委員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費라면 이것이...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315입니다. 勞政事業 중에 民間에 대한 經常補助費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이것은 勞政事業 중에서 勞使協議會 운영과 관련한 民間經常補助가 아니고 그냥 民間經常補助로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어쨌든 管理者 監督者의 교육의 거의 90% 이상을 韓國産業訓練協會에서 하고 있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의 일부 작은 숫자를 社內 職業訓練院이라든지 다른 經濟團體 등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管理者 監督者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명칭은 監督者 또는 管理者 訓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에서 개발한 訓練이 아니고 1945년에 美國에서 TWI(Training Within Industry)라고 하는 전형적인 訓練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로 訓練의 대상이 현장에서 職長 組長 班長으로서 몇몇 사람의 일반 工員을 지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訓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訓練의 형태에서 産業發展을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는 美國의 예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産業發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制度를 도입한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이렇든 勞使關係의 안정이라든지 勞務管理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런 뜻은 아닙니다.

○盧武鉉委員 주로 生産性的 향상 문제도 있고 産業의 안전 문제도 있고 어떻게 관리기술 또는 현장작업기술의 전반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生産性 향상 운동의 일환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주로 과목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指導方法하고 그 다음에 作業改善要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人間關係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지도하느냐 하는 방법하고 産業安全...

○盧武鉉委員 우리가 크게 보아서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소위 工業經營技術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소위 生産性 향상을 위한 工業經營管理의 측면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술향상에 관한 '코스' 아닙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우선 이와 같은 교육을 시켜낼 수 있는 현재 國內의 教育機關은 주로 어떤 곳이 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지금 현재 있는 곳이라면 韓國産業訓練協會 그 다음에 이와 같은 監督者訓練은 아닙니다. 라는 管理

者訓練하고 유사한 것은 韓國能率協會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韓國經營者總協會 이와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韓國標準協會에서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능력은 부족합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예. 애당초에는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소속하에 있는 中央職業訓練院에서 일부 해왔습니다.

○盧武鉉委員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이것은 1968년부터 71년 정도까지 한 3年間에 걸쳐서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盧武鉉委員 中央職訓에서 해왔다는 말씀이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예.

○盧武鉉委員 그런데 우선 韓國產業訓練協會가 처음에 社團法人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財團法人이 됐는데 財團法人의 出捐基金이 얼마쯤 됩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8,000萬원입니다.

○盧武鉉委員 현재 그렇지요? 理事長은 劉容泰씨라는 분이 맞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분이 여러 가지 前歷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과거 勞動部の 勤勞基準局長을 지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은 政黨의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어느 政黨 幹部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民主正義黨입니다.

○盧武鉉委員 地區黨 委員長이지요? 어디 地區黨 委員長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지금 銅雀區...

○盧武鉉委員 銅雀區 地區黨委員長으로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예.

○盧武鉉委員 추궁성으로 質問하기 전에 사실부터 좀더 확인합시다.

中央職訓에 이와 같은 과정을 創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예.

○盧武鉉委員 왜 그렇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왜냐 하면 이 訓練은 원칙적으로 技能工 訓練이나 이와 같이 社業內 職業訓練을 義務化시키는 職種이 아니고 生産性 향상의 일환으로 일선 監督者나 또는 管理者에게 행하는 訓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訓練典型이 원칙적으로는 生産現場에서 그 訓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生産現場에서 가르칠 수 있는 指導要員을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中央에 집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教育을 해 왔는데 中央職業訓練院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옥 하다가 원래 中央職業訓練院이라는 것은 職業訓練教師의 養成課程 機關인데 그 機關에다가 監督者 訓練이라든지 管理者 訓練 이와 같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專門性이 좀 결여돼 가지고 中央職業訓練院에서 해 나가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盧武鉉委員 中央職訓의 專門性 缺如라는 뜻입니까? 業務의 성격상 法的 制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것은 아닙니 다마는 中央職業訓練院 같은 데에서는 技能爲主로 해서 技能工 訓練을 하는 곳인데 지금 監督者 訓練을...

○盧武鉉委員 中央職業訓練院의 教育課程을 다시 기른할까요? 전부 技能爲主로만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職業訓練教師課程인데요 각 職種別로 技能爲主로만 되어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教科課程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教育의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전혀 다릅니다.

○盧武鉉委員 예를 들어 管理者訓練이나 人間關係管理技法 정도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作業指導技法이라든지 作業改善技法이라든지 作業安全管理技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많

이 있거든요. 時間配定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技能이라는 것이 技能만 獨立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技能과 그 技能의 現場 管理 그런 것들도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요. 아주 初步的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科學的 管理法이라든지 人間關係論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동떨어져있는 學問의 領域이 아니지 않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저희들이 지금 현재 中央職業訓練院의 경우에는 職業訓練教師課程이기 때문에 주로 技能을 위주로 해서하는 이외에 그와 같은 기능을 가르치는 한 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유사한 과목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WI라든지 管理者訓練이라는 것은 그 과정 자체에 사용하는 언어부터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말하자면 한 科目當 10時間씩 해서 네 科目에 40時間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40時間에 가르치는 것은 저희 職業訓練教師課程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管理者 監督者를 교육하는 教師는 지금 職業訓練院에서 輩出하고 있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專門職으로서 教師는 키워내면서 教師를 키워내는 곳에서 그 밑에 被教育生을 教育 못해낸다는 것... 물론 經營上 여러가지 能率性이나 合理性은 별 문제로 해두고 性質上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 일론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그 정도로 해봅시다. 이것은 專門的인 討論이니까 굳이 非專門家가 專門家하고 討論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봅시다. 우선 그러면 能率協會라든지 經營者 總協會라든지 標準協會 여기서 교육받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이 韓國產業訓練協會 교육받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 과정은 똑같은 과정들입니다.

○**盧武鉉委員** 똑같은 과정인데 돈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다른 教育機關에서 돈을

받는 것은 基金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 產業訓練協會에서 교육받는 것은 基金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合理的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없을만큼 이렇게 마구잡이로 運營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本委員이 미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訓練課程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訓練費의 支給은 이러한 의미에서 조금 다릅니다. 첫째 韓國產業訓練協會에서 하는 것은 저희 勞動部가 一般的으로 職業訓練促進基金에 들어오는 것중에서 中小企業 分野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訓練을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國家가 적어도 그와같은 基金을 내놓는 中小企業을 위해서 이와같은 訓練課程을 代替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주로 그와같은 企業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다 委託한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分擔金を 만일 社內 職業訓練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 會社가 직접 다른 기관에 委託을 해서 하고 分擔金を 내지 않는 會社는 다른 데에 가고... 訓練促進基金 分擔金を 내지 않습니까? 分擔金を 내면 여기에 해당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지는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지 않으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크게 봐서 生産性 向上 教育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勞動者 福祉가 아니라 原則的으로 生産性 向上이라는 것은 企業에 대한 혜택이란 말이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企業에 대한 혜택인데 어떤 것은 勞動部에서 부담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자기들이 自體的으로 자기들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지요. 中小企業과 大企業으로 구분합니까? 分擔金を 내는 사람과 안내는 사람이라든지 딱 잘라서 기준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해석이 됩니다. 일단 勞動部에서 委託하는 것은 企業에서 받은 돈만큼을 그대로 委託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勞動部에 직접 내지않고 직접 그 기관에다가 그 돈만큼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부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盧武鉉委員** 職業訓練法입니까? 職業訓練法에 의한 分擔金을 내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대로 自體教育 프로그램을 안가지고 있는 대신에 分擔金을 내고 이 교육도 여기다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中小企業들을 묶어가지고 勞動部가 委託하는 것은 產業訓練協會고 그외에 아까 말씀드린 標準協會라든지 이런 기관은 직접 기업이 그쪽에다 依賴하는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맞습니다. 맞는데 分擔金이라는 것은 賣出額의 얼마 이런 것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을 위해서 職業訓練分擔金을 따로 받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아닙니다.

○**盧武鉉委員** 이 교육만을 위해서 職業訓練分擔金을 따로 받는 것은 아니고 一般的으로 職業訓練分擔金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分擔金에는 비단 이 교육 말고도 자체내에서 200人이상 企業體이면 자체내에서 훈련해야 되는 많은 經濟的負擔이 필요하고 訓練하자면 어려우니까 分擔金을 내고 教育訓練施設은 안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訓練內容에는 管理者 監督者 말고도 技能訓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훈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물론 이 監督者라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직접 이 교육을 안받기 위해서 分擔金을 낸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니고 賣出額對比 分擔金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예.

○**盧武鉉委員** 그리고 產業訓練協會에 안오고

能率協會나 經營者總協會나 標準協會 이 쪽에 하는 쪽도 경우에 따라서는 社內職訓을 안가지고 있고 分擔金을 내는 業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行政이라는 것은 명쾌해야지요. 이것은 왜 政府에서 부담해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人이상의 中小企業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기준이 없이 누구는 能率協會 經總 또는 標準協會에 가서 교육받고 會社돈 내가지고 하고 누구는 勞動部에서 부담해 주고하는 기준이 명쾌하게 안나오면 어썬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지금 產業訓練協會에서 하고 있는 委託訓練課程중에서는 一律적으로 300名미만이다 500名미만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갖기는 뭐합니다마는 產業別로 中小企業에 해당되는 그 분야는 주로 自體적으로 管理者나 監督者를 양성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大企業인 경우에는 自體的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盧武鉉委員**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여기에 空車타려고 하지... 여기 申請基準이 안나와있으니까 누구든지 여기다 申請해서 空車타려고 하지 누가 自體「프로그램」 개발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만한 주관도 안맞추고 합니까? 1人當 20萬원씩이나 드는데... 어느 것이 20萬원짜리입니까? 監督者는 20萬원짜리 管理者는 18萬원짜리지요? 단돈 10원이라도 우겨야 된답니다. 그리고 勞動部에서 推薦하는 교육기관일수록 權威도 있을테고 교육을 받는 사람부터 우선 여기에 한번 끼자는 것이... 地方에서도 勤勞監督官한테 가서 고개라도 더 숙여야 선발될 것같은 그런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까?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 基金이라는 것은 소위 韓國의 職業訓練制度의 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分擔金인데 이 分擔金을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보면 特定 企業에 혜택을 준 결과 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음에 명쾌한 答辯이 있으면 오해를 풀겠습니다. 그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알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은 그렇고 이 產業訓練協

會가 監査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講師陣은 전부 다 자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언제까지 教授陣이 자격도 없었습니까?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본시 자격을 못갖춘 講師陣들이 교육을 해 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서 고친 것이 언제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86年度부터...

○**盧武鉉委員** 監査實施期間 88年11月28日부터 12月3日까지해서 여기에 自體監査에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自體 지적되어가지고 專任教授 7名을 任用 發給해서 活用함으로써 教育訓練 效果를 提高하겠다 이렇게 措置結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89年初라든지 이때에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왜 86年 얘기합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86년에 과목을 담당하는 教師別로 보아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자격을 안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와같은 監査에 지적되기 이전에 일부 참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盧武鉉委員** 어떻게 그 전에도 일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있었지만 88年度에 지적된 것은 教師 1人當 訓練人員基準未達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教師 1人當 問題까지 다 補完되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監査이후에는 전부 補完이 되었습니다.

○**盧武鉉委員** 문제는 教育의 委託을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상태에서 委託을 했다는데... 이는 88年과는 상관없는 이전의 문제이지만 거기에 또한번 우리로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前職이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것은 人間社會에서 차마 따지기는 저희도 낫이 감지리올만큼... 人間の 關係를 사부 罵倒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勞動部 勤勞基準局長출신이면 이런 일을 하는데 오히려 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지요? 前官禮遇를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럴수록 더욱더 國民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문제를 명쾌하게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느 政黨의 幹部라 말이지요? 政黨의 幹部라고 이런 것을 運營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歷史가 이런 것을 고깝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지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教育의 내용중에 부분적으로는 소위 政治的 선택과 관련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일종의 思想教育이라는 것은 매우 政治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우선 教師라든지 施設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돈을 이디서 얼마씩 빌려서 했는지 모르지만 財團法人으로 전환된 때가 86年8月인데요 이렇게 변경될 때 出捐基金 8,000萬 원... 요사이 8,000萬원 들고 가면 明洞의 땅 한 坪 샅니까? 8,000萬원짜리 基金을 가지고 設立한 이 財團의 教育施設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지금 劉容泰理事長 본인이 政黨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그와같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產業職業訓練協會는 이미 劉容泰씨가 1981년에 理事長이 되기전에 67년에 이와같은 管理監督者 訓練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設立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國家機關이 설립해도 될만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民間次元에서 主導하기 위해서 民間이 會員別로 해서 주로 民間이 主軸이 되어가지고 하는...

○**盧武鉉委員** 政黨問題에 관해서는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이 꼭 하다가 81년에 劉容泰씨가 여기에 理事長으로 就任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전에 社團法人으로 해오던 것을 財團法人으로 바꾼 것은 마치 그 단체가 不實했기 때문에 이것을 補完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盧武鉉委員** 8,000萬원 基金을 가지고 教育施設을 지금까지 빌 가지고 있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人的 設備部分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89年 들어와서 是正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物的 設備는 현재는 어

떠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物的設備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 동안에는 거의 다 賃借를 해서...

○**盧武鉉委員** 賃借했으면 賃借內容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5層 빌딩인지 3層 빌딩인지... 專任講師들이나 教授들의 연구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專任教授研究室은 얼마나 되며 全體 管理坪數는 얼마나 되며 講堂은 專用 講堂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와같은 시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하기 위한 教育施設로서는 그때그때 장소는 會館을 빌린다든지 해서 운영해왔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니까 묻는 것이 아닙니까? 돈 8,000萬원 들여서 이런 教育施設 못 만듭니다. 내가 政黨問題를 안고집어내려고 했는데 시설도 아무 것도 없고 이 호텔 저 호텔 남의 講堂 빌려 가지고 하는 教育... 講師는 講師대로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이나 또는 勞動部 公務員들 가지고 講演해 주고 물론 講演料야 받겠지만... 전부 勞動部の 언덕에 비비고 먹고 사는 단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번 職業訓練管理公園 事務室은 얼마에 賃借했느냐하는 문제로 國政監査때 문제가 제기된 것 아시지요? 너무 싼값에 賃借하고 있다는 문제로 特惠아니냐는 是非가 있었지요? 그것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어떻든 그것은 뒤에 따져봅시다.

너무 그것만 公共建物이고 이것도 다소 公共性이 있는 단체처럼 보이니까 조금 특별한 취급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도 없고 物的設備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올해는 이 協會가 큰 教育施設을 짓지요? 全體豫算 18億7,000萬원中 자체자금 5億6,500萬원 借入金 13億500萬원인데 이 借入金은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빌려준 것이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利子는 얼마씩 받기로 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6%입니다.

○**盧武鉉委員** 据置期間은 없나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据置期間은 5年입니다.

○**盧武鉉委員** 償還期間은?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5年으로 되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年利 6%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지금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세상에 자기돈 5億 이것은 現物出資評價 즉 土地評價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돼온 꼴로 봐서는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쭈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돈 5億 들고 땅하나만 딱 사가지고 땅은 놔두면 不動産이니까 不動産投機인데 이것은 누구라도 빌려서라도 하겠습니까.

땅 사놓고 勞動部에서 짐지어주는데 이 빛은 뭘로 갚습니까? 이 장사해 가지고 갚지요. 이것은 教育機關이 아니고 장사입니다. 사람 모아다가... 勞動部에서 管理者 監督者를 88年에 1,500名 또 苦衷處理委員訓練 89年 다 보태면 얼마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88年에 6億입니다.

○**盧武鉉委員** 그것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저도 이런 것 하나 지을테니까 빌려줄래요? 나 國會議員 때려치고 이것하렵니다. 앞으로 計劃이 매년 몇 千名씩 불러나나게 되어 있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장사 나 좀 시켜주십시오. 당장에 배지 떼고 이것 하렵니다. 땅짚고 헤엄치기 國家豫算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部分的으로 勞政事業部分은 國家豫算이고 基金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 전부 人件費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勞務費上昇으로 인해 輸出이 안된다는데 이것 勞務費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輸出單價上昇된다고 해서 밤낮 勞動者들만 매맞고 있는데 이것이 勞動者福祉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勞動部豫算中 勤勞福祉를 위해 쓰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職業訓練 말고 순수하게 勤勞者福祉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勤勞福祉公社豫算 한번 꺼내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韓國의 勞動部豫算 產特會計 基金 전부 다 보태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대가 관계없이 企業主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돈으로 職業訓練以外 勞動者福祉를 위해서 제공 되는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職業訓練所 訓練生 들이 밥값 가지고 하루 밥값 1,500원 주느 니 안주느니 해서 작년 國監때도 얘기해서 조금 올렸고 올해에도 지금 올라야 된다 안올려야 된다 하는데 이놈들은 뭘데 모아 가지고 食事 한번에 2,000원씩 주면 하루에 6,000원입니다. 호텔 에서 잠재우고... 이것이 行政이예요? 도둑질이지.

이것 2,000원의 單價基準을 내놓으세요. 公共訓練院委託訓練費의 기준같은 것이 政府에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한 사람當 하루에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職種에 따라서 技能工 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盧武鉉委員 과정에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5泊6일에 20萬800원짜리가 이것 말고 다른 데 또 있는가 봅시다.

이게 技能工 한달 訓練費입니다. 政府에서 직접쓰는 돈에는 食代基準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答辯準備하는 동안 봅시다. 長官! 産業訓練協會수입의 90% 이상이 勞動部豫算아 됩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잘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盧武鉉委員 대부분 勞動部에만 의지해서 먹고사는 곳이고 앞으로 더욱더 그 비중이 높아집니다. 또“勞動”雜誌 發行해가지고 전부 勞動部에서 사주지 않습니까? 나도 “勞動”雜誌 봤는데 그것이 내용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지금 勞動研究院에서도 “月刊勞動動向”같은 수준높은 것이 나오고 이제 달라집니다. 이것은 雜誌水準이 아주 낮아요.

하물며 오늘날 産業安全問題라든가 이런 데 弘報費用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産災問題때문에 雜誌하나 내더라도 “勞動科學”이라는 것을 勞動者들에게 가는 데마다 또는 企業家들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광범위

하게 弘報해야 되는 시기에 “勞動科學”같은 産業安全에 관한 科學的인 수준높은 책을 한권이라도 더 찍어내야지 내용도 없는 “勞動”誌 찍어서 勞動部에서 다 사주고 이것은 호박이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訓練費에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管理 監督者訓練에 있어서 宿食費가 全體 5萬5,800원 1日 寄宿費가 6,000원 食費가 1食 1,300원씩 되어 있습니다. 技能工訓練에 있어서는 1年치 전체를 과정별로 묶게 되어 있는데 지금 職業訓練管理公團傘下에...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지금 여기 1人當 5泊6일에 20萬800원 이것은 규정에 맞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그 規定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經濟企劃院의 2年前 政府單價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經濟企劃院에서 나온 單價로 계산해서 밥 한 끼에 2,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아니 1食에 1,3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과 技能士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盧武鉉委員 어떻게 이제 쪽 얘기를 다 했는데 局長님은 들어가세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마지막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産業訓練協會에다가 管理者 監督者訓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81年 이후에 劉容泰씨라는 自然인이 理事長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와 같은 事業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맡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 職에 종사하기 이전에 67년에 이 必要性에 의해서 저희들이 協會를 만들고 이 協會를 만들거에도 民間人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勞動部에서 民間次元에서 民間이 주도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만들었고 그 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82년에 이것을 財團法人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해 왔던 事業입니다.

○盧武鉉委員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꼭 필요합니다.

○盧武鉉委員 꼭 필요하다면 勞動部에서 이런 것은 出捐機關으로 설립을 해야지요. 法的 규제를 받도록 하고 만일에 이것이 지금 出捐機關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決算報告書라도 받아보고 얼마만큼 착실하게 운영되었는가 안돼있는가도 알고 그러지요. 돈 8,000 萬원 달랑 들고 물론 借入金 같은 計定으로 해서 그 동안에 剩餘金 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借入金이나 剩餘金으로 5億짜리 땅 하나 사고 8,000 萬원짜리 財團에서 빚안내면 땅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財團 따로 個人 따로 아니겠습니까? 個人 땅에다가 이것한다고 땅 用途變更 이런 것하면 땅값 올라서 또 재미 볼 수도 있습니다. 온갖 말썽에 휩쓸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왜 그냥 보고 있습니까? 가장 決定的인 것은 13億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出捐機關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면 그야말로 勞動部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라미드」구조에 의해서 부득이 일찍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여기 가서 몸바쳐서 勞動部에서 오래 일하던 公務員이 退職해서 가도 좋고 또 가고 할 수도 있고 중간에도 나가서 여기 가서 俸職하고 작은 자리라도 하고 뭔가 國家에 멋멋하게 기여하면 좋지만 個人이 마구 갖고 노는 個人 밥그릇 이것 갖고 勞動部 公務員들 나중에 말하자면 그 길까지 스스로 막아버린 것 아닙니까? 是正할 對策은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盧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訓練局長 말씀도 있었습시다마는 劉某씨가 이 事業을 맡기 훨씬 이전부터 이 事業을 勞動部에서 주관해 오다가 莊團法人으로부터 財團法人으로 바뀌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特定個人에 대해서 특히 政治的으로 지원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盧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모두 감정이 있다 보니까 勞動部에서 있던 職員이 그 일을 하니 아무래도 정이 좀

쏟렸지 않았느냐 그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당연히 설정해야 될... 예를 들면 여기에 入所해서 教育 받아야 할 被教育者의 선정기준 業體 이런 것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答辯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그런 데에 잘못도 있는 것 같고 是正해야 될 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바 無原則하게 어떤 特定人을 지원해 주기 위한 때부자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事業이 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勞動”誌에 관해서 저도 와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더니 “勞動”誌가 원래 勞動部에서 직접 公報館室에서 쪽 발간이 돼서 해 오던 것이 公務員들이 하는 데는 아무래도 雜誌 같은 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國會에서 상당히 말썽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民間人에게 차라리 委託經營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民間人한테 하는 것이... 그것도 역시 그래도 勞動關係를 알고 雜誌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劉씨라는 분한테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勞動”誌를 보니까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 자체가 충실하나 안하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하루 아침에 금방 없애버리는 데는 저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長短點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管理者들과 指導者들 經營者들에 대한 教育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는데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勤勞者들에 대해서 技能訓練을 받고 있는 訓練生에 대해서 월등하게 日當이 많이 지급된다든지 부당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등은 是正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稅務公務員이 나가면 稅友會를 만들고 關稅廳公務員이 나가면 關友會를 만들고 警察을 그만 두면 警友會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것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것 자체도 빼놓으면 新聞에 나오고 말썽이 많은데 차라리 이것은 勞友會가 낫지 않겠느냐 작은 事業이지만 그러면 서회가 불때 오히려 이것보다는 마음이 훨씬 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執行過程에 있어서 公正性이나 客觀性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常委質問이나 國監이나 한번 묻고 따지고 나면 끝났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合理的인 代案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委員님이나 다른 黨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같은 野黨委員님들은 제 質問으로 충분히 설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요하게 여기에 관련된 豫算은 제가 납득을 못하더라도 다른 委員님들은 납득할 수 있도록 새로 조치해서 90年度 豫算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아까 答辯에서 언급을 못했습니다마는 13億 貸出件은 저도 과연 이 사람이 財政的인 능력으로 봐서 13億을 나중에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 또 13億이라는 巨額을 貸出해 줄 때는 擔保는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그 점을 확인해 보았더니 擔保는 전부 다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매일 염려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盧委員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例를 들어서 기준 표준 이런 것은 合理的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래의 目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盧武鉉委員**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勞動部가 直營하는 豫算입니다. 이것은 出捐機關이 되어야 돼요. 땅을 사들여 가지고 財團法人에 대한 理事選任權을 勞動部가 갖는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6%짜리 利子 그것만 갖고도 득해 아닙니까?

다음 豫算問題 一般的인 것들은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新民主共和黨 所屬 金炳龍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몇 가지만 長官께 質問하겠습니다.

먼저 長官께서는 政治에도 오랜동안의 경험이 많으시고 議會에서도 重責을 맡으셔서 政治를 해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또 他部處의 長官도 지내신 분이고 해서 상당히 저희 勞動委員會로서는 勞動行政에 대해서 소신 있고 책임있는 行政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豫算에 대한 것은 質疑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勞使問題點으로 등장해 있는 몇 가지만 答辯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勞使問題로 해서 또는 勞動運動을 하다가 拘束된 勞動者가 지금 數百名이 감옥에 가 있는데 長官께서는 이 拘束者들에 대해서 政府 입장에서나 또는 勞動行政을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長官으로서 그 사람들이 勞動運動을 하면서 어떤 實定法을 위반했다는지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個人的인 어떤 犯行을 저지르기가 전에 集團的인 행동을 하다가 일단은 拘束이 되어 있기 때문에 政府次元에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관용을 베풀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좀 長官의 소신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金委員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勤勞者들중에서 拘束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拘束의 이유가 단순한 勞動關係인 부분은 아주 극소수이고 대개는 勞動問題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령 業務妨害라든지 혹은 集示法이라든지 暴行 暴力 등 그런 刑事犯으로서 拘束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로서는 일단은 이미 司法的인 처리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令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金炳龍委員** 물론 拘束者 가운데는 勞動運動과 관계없이 拘束된 勞動者도 혹가다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勞動運動을 하다가 集團的인 행동에 의해서 暴行 또는 業務妨害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拘束된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것은 어떤 個人的인 문제가 아니고 集團과의 政府 또는 勞使間의 문제 이런 集團의 인 서로의 문제였기 때문에 政府로서는 그러한 勞動者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勞動者는 權力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합니다. 딱 法을 앞에만 놓고 法에 적용시키면 그 사람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그러나 힘을 가지고 있는 政府가 그 사람들이 일단 갔다 하더라도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건전한 勞動運動 또는 事業場에서 충실하게 作業을 하겠다고 하면 政府에서 그런 관용은 있어야지 이것은 모르겠다 法대로 다 살아라 이것은 政府으로서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金委員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勞使紛糾過程에서 不法行爲와 관련해가지고 勤勞者들 다수가 拘束된 데 대해서는 勞使行政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產業平和를 위한 次元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까지 勞動部로서는 힘이야 있든 없든간에 勞使紛糾事業場에 대해서 勞使問題의 自律解決原則에 따라서 勞使間에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방법에 의해서 對話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勤勞者의 理解不足도 있고 또 하다가 보니까 產業現場의 紛糾의 現場에는 직접 事業場과 관계 없는 第3者들이 投入이 되고 介入이 되고 그래가지고 선동을 한다든지 또 事業場을 不法占據를 한다든지 暴力 등 不法行爲가 행해지고 또 罷業이 長期化되고 그래서 今年 上半期에 겪었던 우리의 勞使紛糾가 어떤 양태로 진행되었던가는 金委員님께서 잘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政府로서도 冒頭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自律解決에 맡기려고 그러지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產業平和를 위해서 혹은 勤勞者의 長期的인 福利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할 수 없이 司法的 처리를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政府로서는 勞使間에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暴力 등의 不法行爲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勞使紛糾는 平和的인 방법에 의해서 法을 지키면서 해결되어야 한다 또 그러한 慣行이 반드시 정립되어야만 產業平和가 온다고 생각을 해서 政府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후에 司法府에서 判決이 내린 것을 보면 상당히 당시에 拘束된 때에 事業場의 상황같은 것을 참작을 하고 정상도 많이 참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지금 下半期에 보이듯이 다소 違法秩序를 지키면서 勞使問題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운이 계속 연장이 되어서 勞使問題가 어느 정도 平和的으로 해결되는 그런 기미가 보일 때에 關係部處와 진지한 협의를 해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蔚山테러事件하고 昌原의 테러事件 여기에 그동안 事件을 지금 계속해서 搜查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長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는 지간에 暴力의 행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 勞動部로서도 司法當局에 특히 內務부와 檢察에 대해서 조속한 犯人 索出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犯人을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서울 醫療保險勞動組合 紛爭問題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는지 어제 오늘 서울 特別市하고 保社部하고 이렇게 3者가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永結** 어제 報告드린 상황에서 특별한 變化는 없습니다. 일단 保社部가 주관해서 서울市와 勞動部가 3者間에 협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團體協約과 관련되는 문제

는 勞動部에서 지도를 해서 어떤 解決策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本質的인 문제인 統合主義나 組合主義나 하는 문제는 勞動部の 次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커다란 政策的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勞使問題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半月1團의 勞組事務室에 도청했다 해가지고 紙上에 報道된 사실이 있지요? 2·3日 前에... 勞動部에서 調査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勞動部로서는 그 도청 장치 관계는 調査할 처지가 못 되고 그것은 警察에서 調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勞動部가 勞動行政을 다루면서 勞組 특히나 勞組事務室에서 會議도중에 그런 事件이 있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新聞紙上에도 일단 알려졌으면 勞動部로서는 당연히 勤勞監督官이나 또는 地方事務所에서 그 現況을 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式으로 行政해도 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일단 事務所에서 알아는 봅니다마는 굉장히 дели케이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대로 얘기하면 勤勞監督官에게 주어진 準司法的인 權限가지고는 調査 또는 내용을 밝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金炳龍委員 그 정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勞動部로서는 地方事務所에 가서 얼마든지 그 상황을 調査가 아닌 現實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調査라는 명칭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勤勞監督官은 뭐하는데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結 그 상황은 알아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勞政局長으로 하여금 報告드리도록...

○金炳龍委員 長官께서 調査할 權利가 있느냐 없느냐...

○勞動部長官 崔永結 처지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金炳龍委員 처지가 아니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長官

께서...

당연히 勞使問題가 일어났으면 勤勞監督官이 가서 그 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가 왜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알아보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勞動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 좋은데 적어도 그런 상황은 紙上에 公開되었고 뉴스에까지 나왔고 당연히 勞動部로서는 現況을 알아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調査할 權利가 있다 없다 내가 그런 말 했습니까? 당연히 勤勞監督官은 調査할 權利가 있는 것입니다. 司法權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金炳龍委員께서 勞組事務室의 도청 문제를 勞動部가 파악해서 적절한 措置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金炳龍委員 措置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본 사항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管轄 事務所에서 일단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資料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金炳龍委員 이 事件이 일어난지 벌써 5日 되었어요.

그런데 勞動部에서는 아직껏 局長이 그것도 報告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이래가지고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局長이나 또는 勞動部 여러 職員들이 애를 쓰시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紙上에 그만큼 문제가 되었으면 勞動部에서는 기기에 대한 現況을 알아서 長官에게 報告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림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파악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金炳龍委員 더 이상 말안하겠어요. 이런 不誠實한 答辯가지고는...

○委員長代理 韓光玉 政府當局에서는 委員들 質疑에 대해 좀 성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平民黨의 李相洙委員의 質問順序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開議한지

2時間쯤 되었는데... 한 10餘分동안 停會를 하겠습니까.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7分 會議中止)

(16時19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至民主黨所屬 李相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李相洙委員입니다.

88年度 歲出決算報告書 細項 1112 勤勞基準事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勤勞基準事業에 쓰이는 豫算의 내용이 됩니까? 우선 포괄적으로 한번 묻고 싶은데요. 특히 거기 나오는 手當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勤勞基準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豫算項目에 있어서 1112는 勤勞基準事業에서 총괄적인 項目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대략적인 項目만 報告드리면 기본적 經費와 運營費 人件費 그리고 事業費에 있어서는 勤勞靑少年會館建立費 그리고 靑少年會館運營費 自治團體에 대한 經營補助費 그리고 貨貸아파트建立費 그리고 勞動文化祭經費...

○李相洙委員 주로 勞動部の 勤勞基準局에서 쓰는 돈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까? 人件費 다 들어 있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바꿔 얘기하면 勤勞監督官의 給料도 이 안에 들어 있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地方事務所에 대한 勤勞監督官의 人件費 같은 것은 地方事務所의 豫算에 들어 있습니다. 地方事務所別로 廳別로 되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勞動部の 勤勞監督官 給與는 여기 포함됐나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아닙니다. 1112의 勤勞基準에 있어서는 勤勞基準局의 人件費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手當에 보니까 豫算은 7,454萬2,0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출한 額은 1,663萬원에 불과하고 轉用額이 3,266萬3,000원이고 不用額이 2,524萬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轉用額이 많은 이유는 됩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轉用事由에 대

해서는 별도로 報告 드리고 手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手當에는 각종 長期勤續手當이라든지 業務手當이라든지 그리고 家族手當이라든지 子女學費補助手當 기타 手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平均 號俸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號俸이 낮아지는지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 現員이 부족할 때는 人件費가 종종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豫算에 대해서 다른 項目으로 전용한 것 같습니다. 轉用內譯에 대해서는 資料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報告 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우선 轉用額이 43.8%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勞務費인데 勞務費에 관해서는 豫算을 세울 때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費用인데 왜 이런 金額에 있어서 43.8%나 이렇게 轉用이 됩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그것은 저희들이 定規職員에 대한 각종 手當도 있습니다. 마는 특히 勤勞女性特別保護로 인한 靑少年教育에 대한 講師手當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手當金額이 正規職員에 대한 각종 手當보다는 一般講師에 대한 手當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手當金額이 많은 것으로...

○李相洙委員 그럼 一般講師들한테 手當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教育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그 구체적인 것은 資料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報告드리겠습니다.

88年度 豫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7年度부터 每年 公認勞務士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87年度 1회만 시행하고 합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문제라든지 해서... 88年度에는 당초에 公認勞務士 시험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88年度 公認勞務士 시험을 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豫算이 전액 不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不用에 대해서 轉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公認勞務士 시험을 치르는 데 이런 별도의 人件費가 들어갑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그렇습니다. 각종 勞務士試驗 出題料라든지 採點料라든지

그리고 監督手當이라는 시험에 따른 手當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經濟企劃院의 單價와 總務處의 각종 試驗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豫算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여기 전용한 내용을 보니까 勞動問題對策費로 1,530萬원 썼는데 이 내용은 뭐니까? 特別辦公費라고 되어 있는데요.

○勞動部動勞基準局長 金龍昭 약 1,000萬원에 대한 轉用內譯은 42個 地方事務所의 勤勞者代表 事業主代表 각종 地方事務所에서 간담회 하는 데 쓰이는 費用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內譯을 書面으로 서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動勞基準局長 金龍昭 그런데 각종 豫算內譯이 總括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꼭 어떤 事業이 이 豫算에서 나갔다 하는 것은 실무적인 면에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報告 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아나 轉用되어 가지고 함께 쓰인 勞動問題對策費 特別辦公費에 대한 支出內譯을 書面으로 줄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勞動部動勞基準局長 金龍昭 예를 들면 年末에 6,000萬원이 필요한데 豫算이 5,000萬원밖에 없을 때 그 1,000萬원을 거기에 포함해서 6,000萬원이 있을 때 地方事務所에서 쓰는 各種 事業이 많습니다. 어떤 1,000萬원을 꼭 여기 썼다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좋아요. 勞務士 시험을 치르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남은 돈이라고 하나까 이해를 합시다.

다음에 勞動部長官께 물겠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88年度에 安企部의 통제를 받으면서 썼던 情報事業費의 額數가 얼마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게 88년에는 아마 豫備費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額數는 2億5,000萬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2億5,000萬원밖에 안 됩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

○李相洙委員 2億5,000萬원이 어느 項目에 들

어 있는가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豫備費 어디에 해당 됩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企劃管理室長 報告드리겠습니다.

지금 李相洙委員님께서 質問하신 情報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油印物 歲入歲出 決算報告書 60 페이지를 보시면 232項目이 있는데 거기에 3億1,490萬원으로 表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두 가지로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勞使紛糾豫防對策推進費로서 10萬원하고 그 외에 6,480萬원은 公務員에게 지급되는 定額情報費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떻습니까? 이렇게 情報事業費를 받고 計劃을 세워서 情報蒐集도 하고 報告도 하지요? 長官께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政府內의 關係部處間의 行政協調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단순한 行政協調가 아닌 것 같고 情報事業費를 받고 計劃을 세워서 情報를 蒐集해서 報告하고 나아가서는 監査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勞動部에서 이렇게 情報事業費를 받아서 計劃을 세워서 下級機關에다가 情報細部計劃을 세워서 蒐集을 하도록 지시한 일은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國家情報細部資料蒐集計劃이라는 것하고 情報費 사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國家情報蒐集細部計劃이라는 것은 安企部가 國家情報의 總括機關이기 때문에 安企部法에 의해서 各部處의 重要國家情報를 總括토록 되어 있어서 그것의 일환으로 勞動부에 自體計劃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公文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李委員님께서 地方事務所에서 확인하셨다시피 地方에 示達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과 情報費 사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렇다면 우선 安企部에서 협

조가 지금 왔다고 하는데 협조가 와서 89年度에 國家情報資料蒐集自體計劃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일은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런데 방금 얘기하기를 國家의 어떤 情報蒐集을 위한 安企部法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勞動部에서 물론 行政機關間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법에 부당한 違法한 내용의 협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현재 勞動部에서 自體蒐集計劃을 세워놓은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安企部에서 요구하는 情報蒐集事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安企部에서는 그러한 細部事項을 규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勞動部 자체에서 勞動行政을 해 나가려면 여러가지가 勞動情報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細部蒐集計劃을 세워서 地方事務所別로 自體計劃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安企部法 2條1號에 보면 安企部가 國內 保安情報를 蒐集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各 行政機關에 협조를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保安情報는 첫째는 對共 두번째는 對政府 顛覆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安企部에 對共이나 對政府 顛覆에 대한 情報를 蒐集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勞動部에서 細部計劃을 갖다가 세우라고 그 指針書를 各 機關에 보내면서 民主勞組의 動態를 파악하라든지 예컨대 勞動相談所의 動態를 파악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이 법에 합당한 지시를 했다고 생각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자체적으로 勞動情報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安企部에 무엇을 蒐集해서 報告하거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細部計劃을 수립해 가지고 各 機關에 보낸 것은 安企部의 지시가 내려와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이 安企部에서 지시내용도 포함해서 아울러서 勞動部에서도 더 확대해서 情

報蒐集을 計劃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法的인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 勞動部로서는 國家 社會安定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勞動情報를 蒐集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管內에서 情報를 蒐集해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실제로 計劃樹立을 지시해서 各 勞動廳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올라왔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계획을 示達할 적에는 중요한 사항은 報告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하나도 報告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委員님께서도 秘密管理記錄簿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것이 비밀로 내려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地方에서 報告가 되더라도 역시 비밀로 報告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管理記錄簿에 하나도 그런 것이 수발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委員님께서 확인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李相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情報도 蒐集해 가지고 올라왔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勞動部에서 自體計劃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計劃書가 수립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釜山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보았는데...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올라오지는 않았습시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서울地方廳에서 내가 적어온 것인데 “89年度 國家情報資料蒐集 自體計劃樹立”해 가지고 이것을 勞動部에서 보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秘密取扱臺帳이 있더라구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 本部에는 접수된 일이 없습니다. 本部 秘密取扱臺帳은 자료로 이미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비밀은 秘密管理記錄簿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갔다면 받지 않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勞政

32200-17(89年4月23日) 관련된 내용입니다. 自體計劃을 別添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釜山서도 마찬가지로 서울地方廳에도 지금 勞動部에 報告를 했어요. 樹立計劃을 세워가지고...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이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內部決裁일 것입니다. 밑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廳長이나 所長에게 이렇게 內部 稟議를 해서 裁可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 文書에 本部에 報告한 施行文 公文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받은 일이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地方廳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勞動部에 報告한 일은 있지만 具體的으로 情報를 蒐集해서 보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局長께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勞動部勞政局長具 具然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計劃을 自體的으로 樹立해서 施行하라고 指示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地方事務所에서 施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部에 報告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長官께 물겠는데요. 지금 局長이 성실한 答辯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에 本委員이 立證을 해가지고 정말 地方勞動廳에서 그와같은 計劃을 樹立해 가지고 勞動部에 報告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局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제가 報告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具體的인 情報를 蒐集해 가지고 報告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勞動部에서 國家情報資料蒐集 自體計劃을 樹立하라 이런 指示를 한 바가 있고 그 指示에 따라서 各 勞動廳에서 蒐集計劃을 세워가지고 勞動部에 報告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報告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없어요? 지금 釜山과 서울地

方勞動廳에서는 秘密臺帳에 登載되어 가지고 나와있던데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다는 委員님 말씀하시는 情況으로 보아서는 內部決裁를 內部稟議로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本部에 報告한 사실은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저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盧武鉉委員도 보고 李海瓊委員도 보고 다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局長한테 내가 警告하는데요. 서울地方勞動廳의 監査速記錄이 나와 있습니다. 이 文件을 만 들어서 勞動部에 보낸 것이 어떻게 해서 보냈느냐 이 文件대로 과연 情報를 蒐集해서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答辯된 것이 있어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제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局長께서 本委員이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勞動部에서 89年4月27日 “勞政 32200-17 89年度 國家情報細部資料 蒐集計劃書送付” 이렇게 해가지고 “計劃書를 토대로 自體計劃을 樹立하여 適히 運營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指示를 하니까 各 地方勞動廳에서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報告를 해왔어요. 勞動部에다... 그래 없다는 얘기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재차 答辯드리겠습니다. 報告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一般文書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秘密文書이기 때문에 반드시 秘密管理記錄簿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秘密管理臺帳에 그것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速記錄을 제가 보고 확인하면 그런 計劃을 세워서 勞動部에 報告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저도 秘密文件을 보고 제가 사인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具體的인 情報를 蒐集해 가지고 勞動部에 報告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答辯하더라도요. 심지어 本委員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職務를 遺棄했느냐 왜 計劃을 세워놓고 政府 報告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局長께서는 計劃을 세워가지고 勞動部에 報

한 일도 없다는 말씀아니십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自體計劃이 報告되지 않았습니니다.

○**李相洙委員** 그 뒤에 앉아계시는... 지난번 監査때 저와 同行했던 뒤의 局長님 계시지요? 한번 나와보십시오. 실례지만 그 당시 제가 물을 때 다 옆에 계셨는데 地方廳 다녀올 때 勞動部에 報告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勞動部職業安定局長 孫元植** 本部에 報告했다는 것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自體計劃은 樹立했고요...

○**李相洙委員** 해 가지고 勞動部에 報告를 했는데 그 다음에 細部的인 情報는 蒐集해 가지고 보낸 일이 없다 이렇게 答辯을 했지요?

○**勞動部職業安定局長 孫元植**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러시면 勞動部長官께 묻겠는데요. 만일에 本委員이 이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局長이 사실 지금 성실한 答辯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자리는 사실 豫算에 대한 決算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일에 허위로 答辯을 했다라는 것이 判明되면 局長에게 어떠한 問責을 하겠습니까? 答辯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永喆** 委員님! 저는 일단은 局長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기억력이 昨年에 있었던 일 혹은 今年 4月달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100%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하는 적어도 秘密文件이었다면 수발臺帳에 그것이 수록되어 있을텐데 그것을 확인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局長의 말을 믿고자 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長官께서 局長의 答辯을 믿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具體的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도 지금 局長께서는 그런 計劃이 樹立되어가지고 各 地方勞動廳에서 勞動部에 올라온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말이 虛僞라면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그것은 제가 책임져야지요.

○**李相洙委員** 지금 현재 局長이 答辯을 허

위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묻겠습니까? 명백하게 저희들이 臺帳을 보고 확인해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勞動部長官 崔永喆** 局長은 지금 長官대신 答辯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局長! 다시한번 나오십시오. 다시한번 내가 물어보고 만일에 성실한 答辯을 하지 않으면 本委員도 가만 있지 않겠어요. 答辯內容을 혹시 지금 잘못 이해하고 다른 대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정확히 물어보겠어요. 우선 勞動部에서 89年4月23日字로 「89年度 國家情報細部資料 蒐集計劃樹立」 이런 公文을 各 地方勞動廳에 下達한 일은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묻는 사항입니다. 이 指示에 따라서 各 地方勞動廳에서 計劃을 樹立해서 勞動部에 報告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地方勞動廳의 경우는 89年6月30日字 「89年度 國家情報資料 蒐集自體計劃樹立」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公文을 作成해서 報告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自體計劃樹立은 했을 것으로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本部에 報告한 사실은 없습니다. 自體計劃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李相洙委員** 좋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豫算審議때 다시 묻기로 하고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金令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韓光玉** 李相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몇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產災保險特別會計 歲入豫算中에 收納率은 85.4%고 未收納額이 557億원정도인데 이것은 徵收決定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保險加入會社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收納率이 저조한 것입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保險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收納率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年度の 保險金 未收納額이 557億원입니다. 이는 주로 石炭鑛業의 不況과 이에 따른 保險料滯納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石炭鑛業의 徵收決定額은 767億원이었습니다. 그 중 42%에 해당하는 317億원이 滯納되었으며 240億원만이 製造業 등 他産業의 零細業體에서 발생한 滯納額입니다.

○李仁濟委員 지금 產災保險法에 보면 民間 保險事務組合制度가 규정되어 있지요?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예.

○李仁濟委員 이것이 實質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아직 크게 활용은 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최근 서서히 지금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현재 勞動部에서 認可한 실적은 얼마예요?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87年度에는 2個所였습시다마는 89年度에는 5個所에서 30億원의 保險料를 徵收했습니다.

○李仁濟委員 先進國에서는 이 組合制度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日本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회로서도 徵收對象이 지금 零細業體로 保險適用業體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이것을 活性化시키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具體的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勞動部勞動保險局長 曹舜文 지금까지 活性化되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保險事務組合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른 法解釋때문에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法에는 지금 特別法에 의해서 설립된 團體 또는 民法 第32條規定에 의해서 勞動部長官許可를 받아 설립된 團體로서 保險加入者委託을 받아 保險料의 修正納付등 保險事務를 취급하는 事業主團體를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特別法에 의해서 설립된 團體라는 것을 商工會議所라든가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建設共濟組合 등으로 해석을 해서 中小企業協同組合傘下의 各 地域團體라든가 業種別

地域別團體에 지금 서회가 民間保險事務組合 業務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檢討中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案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을 報告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李仁濟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었는데 歲入歲出決算概要 22 페이지에 보면 88年度에 韓國産業安全公團에 41億5,400萬원 出捐을 豫備費項目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豫算會計法을 보면 豫備費는 産業安全公團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는 項目은 아닌 것같은데 豫算會計法 26條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를 國會에서 承認을 받는 것인데 우선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고도로 계획되고 아주 政府에서 必要性을 오래전부터 알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事業인데 그것은 아니고 또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위하여 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까?

이런 項目이 있는 豫算가운데서 그것이 범위가 늘어날 때 豫備費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豫備費로써 出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같은데 어때요? 豫算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보십시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尹錫春 産業安全局長이 答辯 올리겠습니다.

産業安全公團을 원래 계획이 88年6月 이후에 설립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 경비를 6個月分으로 잡아가지고 19億2,970萬원만을 計上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再昨年 전반기에 産業災害라든가 職業病問題가 아주 심각해지고 또 특별히 職業病問題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어서 당초보다도 6個月을 앞당겨서 87年12月9日에 初期에 設立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8年度 不足豫算額이 41億5,353萬원을 計上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產特會計 豫備費에서 편성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李仁濟委員 産業安全公團이 설립된 것은 언제입니까?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尹錫春 87年12月9日입니다.

○李仁濟委員 6個月分 計上된 것은 88年度豫算에 된 것이고 설립당시에는 얼마를 出捐했지요? 87年度에는 産業安全公團에 出捐項目으로 豫算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尹錫春 87年度에 9億5,700萬원만을 出捐을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어느 項目에서 出捐했습니까?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尹錫春 87年度에 9億5,700萬원은 産特에서 轉用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일단 轉用한 액수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報告드린 19億원은 豫算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88年度豫算으로써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이런 고도로 계획해서 시행하는 事業에 관한 豫算은 원래 豫算의 倫理上 豫備費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豫備費項目에서 지출되는 것은 國會의 事前審議權을 배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文字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財政需要 이런 것에 應答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해야지 이런 事業豫算에 豫備費項目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産業安全公團의 出捐하는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豫算의 倫理上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一般項目에 計上을 해서 사전에 國會審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尹錫春 예, 알았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같은 冊子 281페이지인데 職業訓練促進基金 支出部分에 관해서 보면 預託金額수가 440億2,000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원래 職業訓練促進基金에서 職業訓練公團에도 出捐을 하지요? 88年度에 얼마 出捐했지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39億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挹탁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활용하는 것이 안중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88년까지는 저

희들이 分擔金의 규모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형식으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89年부터는 預託金보다도 실질적으로 事業에 出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中小企業이 밀접한 地域工團이라든가 事業主團體가 職業訓練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89年 90年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約 220億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李仁濟委員 來年度豫算에는 職業訓練公團에 出捐金を 얼마를 計上해 놓았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37億을 計上해 놓고 있는데 그외에 訓練補助金이라고 100億원을 별도로 해서 전부합쳐 가지고 137億원입니다.

○李仁濟委員 職業訓練公團을 監査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양성한 技能工들이 100% 취업이 되고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더 出捐해 가지고 技能工도 더 양성하고 장비도 노후되어 가지고 教師들이 불만이 많던데 장비도 개선을 하고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실질적으로 職業訓練基金法에 의해서 그와 같이 사용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社內訓練義務制度和 관련해 가지고 國家가 양성한 부분하고 社內가 양성한 부분하고 내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公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음 國家가 담당해서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企業主가 훈련을 해야 할 의무 대신 남부한 액수를 가지고 國家가 해야 할 訓練公團費를 應答한다는 것은 지금 時點에서는 實施比率이라든지 出捐金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지내왔습니다.

○李仁濟委員 앞으로는 많이 出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이것은 앞으로 出捐을 합니다마는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職業訓練管理公團에서 하고 있는 費로써 出捐하는 것보다는 事業主가 낸 것이기 때문에 事業主가 공동으로 하는 그와 같은 訓練施設費와 裝備費로 應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報告드렸습니다마는 89년부터 90년까지 約 220億원의 補助金으로 계획해 가지고 事業主團體가 事業主 스스로 행하는 職業訓練을 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裝備費로 충당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신 職業訓練院의 裝備는 아주 老朽되고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커리큘럼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技能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등등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改編과 동시에 일단 노후한 裝備들에 대해서는 來年度에 交替를 위해서 111億이라는 豫算을 計上을 했습니다. 91년도 한 100億정도 해서 年次的으로 교체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來년에는 우선 110億 豫算에 올렸습니다.

○**李仁濟委員** 지금 이 基金이 전부 얼마 있어요? 職業訓練促進經費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지금 全體는 445億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남아있는 돈이? 그러면 1년에 分擔金 얼마나 걸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1년에 들어오는 것은 約 120億 내외입니다.

○**李仁濟委員** 政府에서는 해마다 出捐하는 것은 없나요?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本委員 質疑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李仁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李 協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協委員** 이 歲入歲出 決算概要를 보면서 선뜻 納得이 안되는 부분의 극히 基礎的인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9 페이지와 12 페이지에 보면 勤勞靑少年 一線見學 이래서 88년에 2萬1,000名을 實施했고 勤勞女性의 경우에는 5,238名을 實施했습니다.

이 一線見學이라면 어디 前方을 말합니까 産業一線을 말합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毎年 靑少年

勤勞者에 대해서 42個 地方事務所에서 模範勤勞者를 1年 몇 회 나누어가지고 産業視察이라든지 또한 一線見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事業입니다.

○**李 協委員** 그 後者의 一線이라는 것은 前方을 말하시는군요. 이 一線見學을 시키는 目的은 무엇입니까? 특히 後者의 前方見學을...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그것은 地方事務所에서 各 管內의 勞動組合代表라든지 勤勞者들의 希望을 들어서 産業視察이라든지 어떤 希望事項에 따라서 一線見學을 원하는 勤勞者들이 많은 경우에는 一線을 見學시킨다든지 産業視察을 시킨다든지 땅굴見學이라든지...

○**李 協委員** 일종의 위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0 페이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0 페이지에 보시면 ILO에 옮겨 버린 功績한 실적을 말했고 그 결과가 ILO 加入支持基盤을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支持基盤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은 具體的으로 어떤 뜻입니까? 언제쯤 우리가 ILO에 加入될만큼 基盤을 확보해 놓으셨는지?

○**勞動部長官 崔永喆** ILO總會는 世界各國의 勞·使·政代表가 共同으로 參與하는 國際會議이므로 이들 代表들과 만나 對話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도 勞·使·政代表를 구성해서 그 동안에 꾸준히 參與했습니다.

제가 단 部에 있을 때도 今年에 사실은 加入目標로 해서 票點檢을 해본 결과 분위기는 매우 좋게 조성이 되었고 또 ILO關係 代表들과도 상당한 紐帶關係도 맺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票點檢에서 다소 確定的인 自信이 없었기 때문에 來年으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年內에는 加入이 可能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決定的인 障害要因은 뭣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역시 아직도 3분의 2 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政府代表만이 아니고 勞·使 3者代表인데 共產國家들이 많이죠 다소 變換이 있다고 하지만은 根本的으로 表決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對立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기가 매

우 어렵습니다.

○李 協委員 政府가 近間에 北方政策에 注力했고 또 成果도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援用받을 수 있는 그런...

○勞動部長官 崔永喆 可能性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에는 업무를 못냈지요. 그런데 地方政策이 상당히 奏效해서 분위기가 많이 完化되었기 때문에 可能性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李 協委員 그러면 다음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대한 質問이 되겠습니다.

이 産業災特에서 오히려. 一般會計로부터 支援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特別會計에서 一般會計에 支援을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야가 休息時間에도 많은 先輩 同僚委員들이 저와 共感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마는 특히 産業安全公團에 23「페이지」에 보면 60億5,700萬원 支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機關運營費라고 할 수 있는 勤勞福祉公社支援이라는지 그 다음에 産災審査官室을 運營하는 데 支援한다든지 地方官署의 廳舍를 増改築하거나 經常事業費를 돕거나 기타 行政支援 등에 特別會計를 活用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長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原則적으로 말한다면 政府가 一般會計에서 전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89年度 豫算까지만 해도 産特會計를 擔當하는 公務員의 人件費는 産特會計에서 부담하고 그 일부를 每年 10億원씩 一般會計에서 輸入을 받아 부담하였습니다마는 昨年度에 제가 알기로는 國政監査에서 조금 지적이 있었고 또 法律도 改正을 해가지고 지금 來年부터는 4月 초하루부터 아마 産災保險關係는 人件費全額을 一般會計에서 부담토록 計上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88年度에는 그것마저도 計上이 안되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그 기타에 관해서도 이런 原理에 어긋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長短期計劃이라도 勞動部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廳舍増改築費라든가 하는 것은 豫算當局과 事務執行費 概念差異로 一般會計에서 부담토록 編成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豫算當局과 協議를 해서 가능하면은 一般會計에서 부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 協委員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塵肺障害 및 遺族慰勞金이라고 해서 9億6,920萬원이 不用額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 찾아냈는데요. 17「페이지」에 나옵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尹錫春 産業安全局長 報告드리겠습니다.

지금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不用額이 아니고 石炭産業의 불경기로 인해서 돈을 내지 못한 未收納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 協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職業訓練管理公團에서 지원하는 技能競技事業이라는 項目이 14「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런던에서 1位를 해서 8連覇를 했는데 지금 國際大會에 참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訓練局長 報告드리겠습니다.

본래 國際技能올림픽大會는 정식명칭은 國際職業訓練大會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各國에 技能訓練에 참여하고 있는 靑少年들이 戰後에 여러가지 戰爭으로 인해서 폐허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 靑少年들에게 희망과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大會를 만들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大會가 점점 가면서 그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변질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그와같은 목적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各國間的 靑少年들이 친목을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大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技能의 경기에 중점을 둔 그런 성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우리 技能의 優秀性을 對外的으로 과시하면 輸出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다소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李 協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의 기술수준이 부족해서 高附加價値商品을 내지 못해서 國際競爭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 靑少年들의 技能은 國際的으로 자랑을 하면서 사실상 技術로 인한 輸出增大라든지 世界競爭에서는 뒤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서로 背理되는 점이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목적을 더 추구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종래 舊態依然한 이 목적의식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職業訓練局長 徐相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8連霸나 했으면 그와 같은 것이 실제 産業社會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에 그와 같은 技能이 반영되어서 우수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와 같은 경향이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자 지금 技能競技大會에서 8連霸를 했습니까는 이 과정의 내용은 주로 저희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한 그런 경기에만 치중한 그런 집중훈련을 한 결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이 國內的으로 확산되었을 때 모든 技能人力의 수준이 그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제품에도 그런 우수한 技能이 침투되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今年에도 실시했습니까는 國內競技大會같은 데서도 國際大會 못지않게 힘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또 今年에 制定·施行되고 있는 技能獎勵法 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시책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韓光玉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李 協委員 다음에 17 페이지의 勞動統計에 관해서 勞動委員會에 새로 왔기 때문에 勞動統計같은 것을 참고할 것을 검토해 보았더니 별로 발견되지 않는데 여기 決算概要에 勞動統計開發에 3億원을 지출했고 또 이것을 위해서 人件費등 1億7,000萬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뚜렷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勞動統計도 經濟企劃院統計를

많이 援用하던데 例를 들어서 今年度 失業者 現況같은 것이 어떤지 또 그것에 비춘 就業의 需要와 供給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이런 것들을 勞動部自體의 統計로서 낼 수 있습니까? 이 실적을 삼간 말씀해 보시지요.

○勞動部長官 崔永結 經濟企劃院이 산출하는 失業率은 經濟企劃院의 對象 抽出하는 방법 이라든지 계산하는 시기들이 따로 있고 우리 勞動部에서 하는 失業率은 철저히 職場에서 失業發生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다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關係局長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統計中의 일부는 企劃院의 統計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失業者統計같은 것은 經濟企劃院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賃金問題와 勤勞者移動問題 事業體問題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統計를 말씀드리면 事業體勞動實態調查를 每年 1回하고 있습니다. 雇傭展望調查를 每年 1回하고 있습니다. 職種別賃金實態調查를 每年 1回하고 있습니다. 勞動生產性統計調查를 1回하고 있고 企業體勞動費用調查를 1回하고 있습니다. 또 屋外勤勞者 職種別賃金調查도 1년에 1回하고 있고 賃金勤勞時間制度綜合調查도 1回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基本的인 統計를 가지고 '알기쉬운 勞動統計를'이라는 책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勞動統計年鑑을 發刊하고 있고 勞動統計要覽도 같이 發刊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주로 調查費用과 그리고 印刷物을 발간하는 비용으로 使用을 하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88年度の 실적을 例를 들어서 政府刊行物 몇개 년 적이 있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昶池 每年 나오고 있습니다.

○李 協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質問하고

概念에 있어서 순수한 의미의 契約者 自由의 原則 이런 데에서 類推할 수 있는 常識에 속하는 것이지 이것이 서로간의 오랜 관행 속에서 생기는 原則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이것은 法律的인 原則이죠 관행이 아니고...

○**李 協委員** 勤勞者를 보호하는 法律은 社會法이죠. 一般私法이 아니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일단은 勤勞者들을 보호한다는 勤勞基準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 協委員** 勤勞基準法이 바로 勤勞者들의 일약한 지위를 감안한 그런 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常識으로 칠 일이고 原則은 自律에 맡긴다는 것 같은 勞使의 大原則이 어디 있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勤勞基準局長입니다. 實務的인 것은 양해하신다면 補充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長官님 答辯이 제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勤勞基準法上 賃金은 어디까지나 勤勞의 代價로서 받는 일체의 金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罷業이라든지 기타 勞動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勤勞基準法上상의 事業主가 勤勞者들한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는 데에서 다만 法律上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行政指導上으로 勞使가 自律交渉이라는 차원에서 승意했을 때는 어떠한 명목이든지 그것은 政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法律的으로 이것을 賃金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勤勞者들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도 勤勞者들이 피해를 받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예를 들면 5·6個月 동안 罷業하고난 뒤에 退職해야 될 事由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退職 당시에 소급해서 3個月分 平均賃金으로 해 가지고 20年 근속하든 30年 근속하든 계산해서 退職金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平均通算賃金이 20年으로 했을 때 30萬원 받는 勤勞者를 볼 때 實質的으로 平均賃金은 50萬원 정도 됩니다. 50萬원으로 계산해서 20年을 退職金 계산하고 만약 罷業期間 동안에 각종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基本給만 계산했을 때의 그런

것하고 그런 法律的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無勞動했을 때에는 勤勞基準法上의 法律的인 賃金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勞使 自律下에서 각종 명목으로 한 것은 政府에서 간섭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변함없는 方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 協委員 局長 答辯** 가운데 自律을 우선한다는 答辯에 저도 수공이 가고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法律的인 차원에서입니다.

○**李 協委員** 그 다음에 現行 勞動關係法이 韓國에서 어떻게 制定되었고 어떻게 改正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완전한 勞動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터에다가 또 法理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勞使 自律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88년에 前任長官이 이 문제를 건드리 가지고 勞使가 안정되고 平和가 하루속히 가까워질 수 있는 데다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勞動部가 큰 고초를 당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長官께서는 前任長官의 그런 懸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다짐을 또 다같이 서로 상호간에 확신을 이뤄두고자 해서 이 質問을 던진 것입니다. 길게 논란을 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長官께 補充으로 물겠는데 지금 李 協委員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法的인 原則으로는 無勞動 無賃金이 옳다고 하더라도 현재 勞使間의 관행에 의해서 罷業이 종결되고 서로 타협될 때 상당한 賃金を 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自律的인 현실을 존중해 주고 가능하면 勞動部에서는 公文을 보내 가지고 無勞動 無賃金의 原則이 옳으니까 설대로 이 原則을 지켜라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答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勞動部에서 방금 李 協委員님의 말씀내용을 존중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알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90年度 豫算案 審議 때 물졌다고 얘기했는데 첫날이 10月30日입니다. 그날 이와 같은 文件을 가

지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級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는 말은 안하겠는데 우선 89年度 國家情報細部資料 蒐集計劃書 「넘버」가 勞政 32200-17입니다. 이것은 勞動部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地方勞動廳에 얘기해 가지고 89年6月30日字로 勞動部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 89年度 國家情報資料 蒐集自體計劃樹立 이런 文件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地方勞動廳과 勞動部에 비치되어 있는 2級비밀 文件에 대한 수발대장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약속할 수 있지요? 제가 복사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간의 質問과 答辯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永喆 예. 알겠습니다.

○盧武鉉委員 한두 마디 물겠습니다.

“No Work, No Pay”는 法的인 原則이 아닌데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따집니다. 勞動部發表로 新聞에 “無勞動 無賃金原則 철저히 지킬터” 하는 것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안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專門家 있으면 한번 따져봅시다. 뒤로야 어떻게 하든간에 그 문제는 그렇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李相洙委員께서 기본적으로 質問은 했습니다마는 1101項의 232目に 크게 보아서 勞政事業의 機關運營에 人件費的 情報費部分이 6,400餘萬원 다음 2億5,100萬원이 문제된 돈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싸우고 해서 결말을 못본 것으로서 대충 감만잡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뒤에 234目に 보면 特別辦公費部分 各目明細書를 보면 監査室情報費 政策開發懇談會 조금 들어있고 當面勞動問題對策費 해서 9,552萬원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算出內譯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勞使紛糾豫防推進費 라는 것을 왜 이렇게 썼느냐 하니까 정보 수집은 아니고 결국 勞使關係의 완만한 힘조적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勞動部에서 勞使指導를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幹部들도 만나서 懇談會도 하고 時局에 관한 教育도 좀 하고 이렇게 썼다 이러면서 그 정당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2億5,100萬원 부분은 그렇게 쓰인 부분이 일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異議는 있지만 이 금액중에서 구체적으로 情報蒐集을 위해서 활동한 活動費用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답안하셔도 좋습니다. 指揮活動費部分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國家의 行政目的을 달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豫算體系上 그 돈은 거기에서만 써주어야지 같은 것을 그 아래 234目に 가면 特別辦公費 當面勞動問題對策費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썼는지 算出內譯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한번 밝혀주세요. 금액은 9,552萬원밖에 안되지만 豫算審議前에 밝혀주세요.

다음에 情報費중 給與的 성격의 것이 있고 지금처럼 勞使安定對策費라고 편의상 해둡시다. 이런 費用이 있는데 서울地方勞動廳傘下에서는 특별히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人件費的인 것입니까? 1億100萬원정도 되는 것...

○勞動部長官 崔永喆 監督官 情報費 10萬원 씩 증액된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情報費라고 되어 있는 일체의 금액중 소위 特別辦公費에 해당되는 부분은 2億1,500萬원 이외에 일체 없다는 말씀이지요? 틀림없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永喆 틀림없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1111項部分의 232目 勞政事業部分 이것은 勞政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당초 豫算이 2,256萬원인데 豫備費를 8,940萬원 당겨다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232目は 情報費인데 情報費는 보통 人件費的 性格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人件費的 性格으로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人件費的 性格이라면 豫備費가 이렇게 쓰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明細를 밝혀서 자료를 꼭 내주세요.

다음에 各目明細書를 보면 225페이지에 情報費項目이 나오는데 1111 역시 勞政事業中 211 勞使教育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5億정도 나오는데 여기 勞使教育 項目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 또 特別辦公費가 8,300萬원정도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勞務管理者班 最高經營者 이렇게 해서 教育 쪽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234 부분에 가면 勞務管理
者教育이 또 나옵니다.

○勞勤部次官 鄭東佑 그것은 全體豫算中에
食代일 것입니다. 特別辦公費가 아니면 食代
支拂이 안됩니다. 사실 情報費와 特別辦公費
가 相互補完의으로 쓰입니다. 구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盧武鉉委員 勞務管理者教育費中에 食代와
辦公費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性質別로 勞
勤部에서 勞勤者를 데려다가 教育訓練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職業訓練 이외에 一般的인
教育訓練合計를 내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315日에 民間經常補助費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1億3,000 정도는 勞組幹部教育 勞務管理
者教育 苦衷處理委員教育 이렇게 되어 있거
는요. 이것이 民間補助金입니까?

○勞勤部次官 鄭東佑 勞總 經總 訓練協會에
다 나가는 돈입니다.

○盧武鉉委員 아닌데요. 아까 그것은 基金에
서 나갔다고 했거든요.

○勞勤部次官 鄭東佑 訓練協會는 그렇고 勞
總하고 經總에 별도 委託教育에 나갑니다.
아까 職業訓練事業은 訓練促進基金에서 나가
는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럼 이것하고 그것하고 單價
는 같이 따져졌습니까?

○勞勤部次官 鄭東佑 經濟企劃院 單價가 같
을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民間에 대한 보조니까 勞組幹部
는 勞總에다 대고 하고 勞務管理者는 經總
쪽인 것같지요? 이 教育費單價하고 아까
基金에서 나갔던 教育費單價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미리해야 되는데 뒷북쳐서 미안합
니다.

그것말고 쪽 뒤지보면 상당부분 勞勤者와
만나는데 엄청난 費用을 쓰고 있습니다. 아
까 "No Work, No Pay"를 先進國의 원칙
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法律的 원
칙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勞使問題가 지금 갈등이 심한 것
은 韓國勞總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거나 그
쪽에 教育을 거들어 주었거나 주로 그쪽
사람을 教育했다는 점에 관해서 異議를 제

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勞使安定이라고 하면은 가
장 말썽 안부리는 사람보다는 가장 말썽꾸
러기하고 對話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 못하는 자식과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다면 말 잘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조
금 덜 돌봐도 되지만 멍더라도 말썽꾸러기
들하고 만나서 무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았
는지 懇談會를 했는지 수건이라도 한장씩
주면서 잘해보라고 등이라도 두드려 준 일
이 있으면 88 89年 실적을 한번 보여주십
시오. 그렇지 않다면 편파적으로 경우에 따
라서는 政府의 어떤 時局에 관한 관점을
부분적인 勞勤者들에게만 얘기를 함으로써
勞勤者들 相互間에 분열을 또는 대립을 강
조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지금 갈수록 만
난 사람들쪽에 있는 數字보다 반대쪽에 서
는 사람의 數字가 좀 많아져가는 것이 사
실인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勞勤行政이 적
절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
다.

이것 자체가 韓國의 勞勤行政에 있어서
勞使自律를 根本的으로 침해하는 부분이 아
닌가 勞勤組合도 自律的 團體입니다. 아까
法理 얘기하는데 法理대로 따지면 오늘날
勞勤者들이 團體協約過程에서 전임자 두 명
내놓아라 세 명 내놓아라 하는 것도 不法
이지요. 合法的이지 않지요. 엄격한 法理論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組合事務所를
使用者들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組合의
自律性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해서 教科書的
으로 보면 法에 맞지 않지만 韓國에서는
오히려 勞勤者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自律性이 침해받지 않는 사회적 風
土를 가지고 있고 社會的 傳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돈을 더달라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정착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勞勤部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合法 不法問題로 얘기 안
하시지요?

그런데 根本的으로는 두 가지 문제를 제
기하려는 것입니다.

自律에 맡기려거든 확실하게 맡겨라... 어
떤 事業主를 위해서 勞勤者가 공짜로 일해

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勞動의 代價가 賃金이다... 공짜로 일해주면 처벌 받습니까? 그 반대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안하고 돈 받아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勤勞基準法에 적용되는 事業者에 있어서 勞動者들의 社會的 지위나 열악한 것을 이용해서 事前에 공짜로 일하도록 계약을 맺는 것을 勤勞基準法이 금지하는 것은 勞動者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使用者保護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 안하고 月給 받는 것은 稅法上 문제가 되는 것은 별 문제로 두고 社會秩序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勤勞者 保護精神이라는 社會法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自律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先進國에 있어서의 勞使關係에 있어서 그것이 정착된 慣行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편파적으로 勞動者들에게 불리한 判定을 해가지고 新聞에다 뻥뻥 이것이 法인 것처럼... 절대 法理的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勞動者들 데려다가 밥을 왜 자꾸 사먹이고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教育시키고 차라리 그전처럼 勞總에다 돈이나 던져주고 그 지원도 엄격하게 말하자면 勞使自律의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고 勞動部에서 직접 만나서이면 좋겠고 만일에 勞動部가 懇談會하고 그러면 거기서 中立性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같이 끼워주십시오. 그리고 미운·자식들 데려다가 같이 섞어서 함께 討論도 좀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 質問은 勞動部에서 많은 돈이 勞動者들을 만나서 뭐 이런 저런 講演會 懇談會 또는 親睦會 勞使和合推進大會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勞使自律을 침해하는 데 쓰여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檢討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答辯 한번 해보야 주십시오.

오늘 너무 늦어서 다른 委員님들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豫算 때 어차피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상세한 것 좀 내놓고 總額이 얼마이며 진짜 누구누구 만나서 이리이러한 教育을 했단지 내용을 좀 압시다. 이것이

오히려 勞動者한테 해코지하는 돈으로 쓰이는지 안쓰이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豫算을 通過시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절대 勞使自律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勞勞間에 서로 균열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資料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質疑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88年度 勞動部所管 歲入歲出決算을 접수하는 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없으시면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議事日程 第2項 1988年度 勞動部所管 豫備費支出承認의件을 承認하는 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會議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1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南 載 熙
盧 仁 煥	安 瓊 熙	李 康 熙
李 台 燮	鄭 宗 澤	李 相 洙
李 協	韓 光 玉	金 在 光
盧 武 鉉	李 仁 濟	金 炳 龍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鎮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立 法 審 議 官	崔 炳 億

○出席國務委員

勞 動 部 長 官	崔 永 喆
-----------	-------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鄭 東 佑
企劃管理室長	金 昶 池
勞政局長	具 然 春
勤勞基準局長	金 龍 昭
産業安全局長	尹 錫 春

職業安定局長
職業訓練局長
労働保険局長

孫	元	植
徐	相	善
曹	舜	文